

외국인 계절근로자 폭염 대책 가동 순창군, 다회용기 세척장 조성

임실군, 온열질환 예방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임실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가 현장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6월 1일부터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폭염 상황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농촌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2022년부터 적극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74명이 지역 농가에 배치돼 농업현장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폭염대응 대책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농업현장의 온열질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가 현장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폭염특보 발효 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작업 중지를 적극 권고하고, 작업장 내 식수와 얼음물 비치, 휴식공간 확보, 그늘막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초기증상 식별방법과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군은 고용주 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안전 안내문자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폭염특보 발효시에는 실시간 문자발송을 통해 기상상황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라오스어 등 9개국어로 제작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리플릿을 배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와 작업장에 폭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직종으로 임실 시니어클럽과 연계운영하는 '시니어클럽 계절근로자 모니터링반'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반을 통해 농가를 방문해 방방시설 작동 여부와 소방안전 상태, 생활 환경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6월까지 시설 조성... 7~8월 시범운영 거쳐 9월부터 본격 가동

순창군이 지역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회용기 세척장이 7월 중 문을 연다.

군은 총사업비 3억 8천만원을 투입해 순창읍 구 순창읍합마니경로당(129.16㎡)을 다회용기 전문 세척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다회용기 세척장은 준공 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순창 시니어클럽의 '청춘드림위실' 공동체 사업단이 운영을 맡게 된다. 군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의 철저한 시범운영을 통해 작업공정 숙련 및 시설장비를 점검 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에 돌입할 계획이다.

세척장이 본격 가동되면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물론 공공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 식기류 보급사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기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사



회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중 전문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회용기를 보급하며, 향후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할인율을 점차 확대해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생 문제도 철저히 관리된다. 세척공정은 △애벌 세척 △불림 △자동 세척 △살균 소독 △건조 △검사 등 총 6단계의 엄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주기적인 오염도(ATP) 측정을 통해 일회용품보다 더욱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나서

남원시자원봉사센터, 교육 진행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자살과 고립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자원봉사자가 이웃의 어려움을 보다 깊이 살필 수 있도록 먼

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연은 특목도서관 김승수 관장이 맡아 진행, 삶의 목적과 행복에 대한 질문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 '참여형 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정답을 찾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한 가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

며 따뜻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평소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던 감정들을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누며, 자신과 타인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제96회 춘향제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참여해 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내가 먼저 행복하고 단단해질 때 이웃을 향한 진정한 공감도 시작된다"라며 "오늘 교육이 봉사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 가치 나누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28일과 6월 2일 이백면 박순규 농가가 기증한 딸기 80kg을 활용해 농산물가공교육센터에서 직접 제조한 딸기잼과 시식용 빵을 남원살림노인복지센터와 남원소망의문 이용 어르신 약 120여 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산물 가공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제품으로 생산해 지역 사회와 나누는 선순환 모델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가공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처리 살균공정과 소규모 생산장비를 도입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기존 잼 생산라인을 활용한 콩포트 신제품 개발 등 가공제품 품목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농산물가공교육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을 수료한 후 영업등록을 거쳐 시설사용을 신청하면 운영인력의 지원을 받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가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협의회장 염상열, 이하 '임실군협의회')는 지난 9일 임실군청 5층 농민교육장에서 자문위원 및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복합위기 현실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관리 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 △추가 위촉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정책건의 의견수렴,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 안내, △2026년 일



임실군협의회 업무보고 및 하반기 사업 계획 논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 회의에 앞서 추가 위촉 자문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전수가 진행됐다. 새롭게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통일정책 자문 활동에 본격 동참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풍산면, 13일 '제2회 풍구장터' 열린다

순창군 풍산면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는 특별한 장터가 열린다.

풍산면주민자치협동조합(대표 구준희)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풍산면 산물림센터 일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제2회 풍구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터에는 순창 관내 사회연대 경제 기업 및 공동체 30개소가 참여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제철 농산물과 다채로운 먹거리를 선보인다. 방문객들을 위한 즐길 거리도 풍성



하게 준비된다. 손수건 천연 염색, 민화 보자기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연계 공연과 버스킹 무대가 펼쳐져 장터의 흥을 한층 돋울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수상안전관리 협의체 회의 열려

순창군은 11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여름철 물놀이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1차 수상안전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매년 동월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상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방침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군 관계 부서와 읍·면 담당자, 순창경찰서, 순창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순창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수상안전 특별대책 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관내 하천 물놀이 지역과 저수지, 야영장, 유원시설 등 총 218개소의 수상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예방·점검·구조·구급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순창군은 올해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지역 17개소를 지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춘향장학재단 해외영어캠프 사전교육

남원 춘향장학재단은 지난 10일 2026년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참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1차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학교 추천을 통해 접수된 36명 가운데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24명의 연수생과 학부모를 대상 해외연수 준비사항과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고 연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해외영어캠프 운영 일정 안내 △뉴질랜드 현지 학교생활 및 문화 이해 △출입국 및 항공 이용 안내 △안전교육 및 유의사항 △준비물 및 생활수칙 안내 등이 이뤄졌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연수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